

## 함영저화: 중국고문물특별전

### 舍英咀華: 中國古文物特別展



#### 전시개요

전 시 명 : 함영저화: 중국고문물특별전

전시기간 : 2016년 12월 1일(목) - 2017년 1월 25일(수)

전시장소 : 학고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중국고문물 131점

####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61201-20161220 함영저화: 중국고문물특별전

### 1. 전시개요

학고재는 2016년 12월 1일(목)부터 12월 20일(화)까지 '함영저화'라는 주제로 중국고문물특별전을 개최한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장장 6,000여 년에 걸쳐 일상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중국의 문물과 공예품을 소략하게나마 한 장소에서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각 시대별로 선별하여 도자기 33점, 옥 제품 28점, 금속 제품 13점, 문방구 및 기타 공예품 57점 등 총 131점이 출품된다.

학고재는 학고창신(學古創新)의 실현을 목표로 기획한 '춘추(春秋)' 전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2010년 「장왕고래(章往考來)」와 2015년 「추사와 우성」전 이후, 이번 「함영저화(舍英咀華)」전이 그 세 번째다. 과거 두 번의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함께 묶어서 그 연관성을 살피는 전시로 꾸몄다면, 이번 전시는 오로지 중국 전통 문물과 공예품만으로 전시를 꾸민 것이 특징이다. 우리 전통의 원류가 대부분 중국 고대 문물에 뿌리를 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문물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번 전시는 어렵게 성사된 한국 최초의 중국 고대 문물전이다. 우리의 전통을 살피고 중국 고대의 전통까지 깊고 넓게 살피는 일은 그것을 바탕 삼아 시대를 뛰어넘는 불후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전통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만이 전통에서 멀리 벗

어날 수 있다. 전시의 주제를 '함영저화'로 정한 것은 백화제방한 봄날의 정원 같은 중국 고문물의 숲 속에서 꽃봉오리를 입에 물고 꿀샘에 고여있는 꿀맛까지 보자는 의미이다. 향기로운 꽃봉오리와 달콤한 꿀물을 안으로 삼키고 삭혀서 가을날 큰 열매로 토해내기를 기대한다.

## 2. 전시주제

### 전통의 커다란 숲을 축소하여 선보이는 전시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회고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전통의 숲 속으로 돌아가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 전통의 원류인 중국의 옛 문물을 깊이 있고 폭 넓게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선인들의 예지를 체득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자양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학교재 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위해 중국 고문물 131점을 선별했다. 마치 대만 고궁박물관이나 중국 유수의 박물관 전시를 학교재 갤러리 본관에 축소해 둔 듯한 전시다. 국내에서 선보여질 기회가 적었던 다채로운 중국의 옛 문물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몸에 품은 도자기

학교재 본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남송/원대 청백유 수골 나한상>(12~14C)을 마주하게 된다. 고된 수행 생활에 몸이 야위어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지만, 형언할 수 없이 평온한 미소는 내면의 법열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앙상한 늑골 위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두루마기의 표현이 인상 깊다. 나한상의 머리 위쪽과 옷깃 부분을 살펴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 유독 맑은 청백색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자기에 유약을 부분적으로만 바르고 나머지는 백토를 그대로 구워내는 기법으로, 남송 시대와 원대에 특히 유행했다.



남송/원대 청백유 수골나한상  
12~14C, H14.3 W11.5

전시장 안쪽에는 <신석기시대 하가점문화 채회 삼족 도격>(2000~1600BCE)이 자리잡고 있다. 오랜 세월을 겪었음에도 훌륭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홍색, 백색, 황색 등의 안료로 그린 기하학적 문양이 표면을 가득 채웠다. 극도로 세련된 현대 추상화를 보는 듯 하다. 이 작품 사선 방향에 <요대 적봉요 백지흑채 척화모란문 매병>(10~12C)이 놓여 있는데, 그 조형과 문양이 우리 나라의 분청사기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전시장 왼쪽 벽면에서 <청 옹정시대 투채 화훼당초 차화문 촛대 한쌍>(17C)을 만나게 된다. 청대의 가장 수준 높은 도자기로 알려진 옹정(雍正) 시대의 경덕진 관요로서, 표면에 채색된 화훼 문양이 유려하다. 청나라 옹정시대에는 관원들이 특출한 장인들을 모두 모아 도자기 제작에 열성을 다했다. 그 때문에 우수한 채색 자기가 크게 발달했고 도자기의 기형도 다양하고 정교해졌다.

### 선대 문인의 정취를 간직한 문방사보

아득한 고대부터 문인들이 늘 곁에 두고 아꼈던 문방사보와 각종 문방 용구에는 그들의 정신과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전시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인장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인장 재료로 가장 애호되었던 석재로 수산전황석과 창화계혈석을 꼽을 수 있다. 가장 중앙에 놓인 <청대 수산전황석 고수뉴 인장>(19C)은 영롱한 빛깔의 수산전황석을 정교하게 조각한 청대의 인장이다. 그 왼편에는 일본의 서예가이자 전각계의 명인인 소림두암(1916~2007)이 조각한 <소림두암 각 수산전황석 서수뉴 인장>이 놓였다. 함께 전시된 창화계혈석 인장은 마치 하늘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특유의 붉은 무늬가 아름답게 맺혀있어 그 가치를 높이 평가 받는다. 이 공간을 지나 안쪽 큰 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민국시대 제백석 「화사백석」 인장>(20C)을 볼 수 있다. 중국의 피카소로 통하는 제백석(齊白石·1860~1957)이 전각하여 널리 알려졌다. 제백석 인장의 10대 걸작품 안에 속할 만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대 수산전황석 고수뉴 인장  
19C, H3.6 W3.3 (37g)



민국시대 제백석 「화사백석」 인장  
20C, H7.3 W2.9

본관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다채로운 문물과 공예품이 좌우로 즐비한 공간이 펼쳐진다. 그 중에서 <원대 청화백자 신화고사 필산>(13~14C)을 볼 수 있다. 첩첩산중으로 표현한 필산 안에 신화 속 이상향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독특한 조형이 돋보인다. 흰 바탕에 푸른 빛을 띠고 표면이 매우 윤택하여 원대 청화백자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원대 청화백자 신화고사 필산  
13~14C, H9.5 W20

선대의 문인들은 벼루를 특히 아끼고 좋아하여 늘 곁에 두었다. 단계석, 흡주석, 증니, 송화강석 등이 가장 귀한 벼루돌로 여겨졌다. 안쪽의 큰 방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청건륭 송화강석 어옹도연(건륭년제명)>(18C)을 만나볼 수 있다. 청나라 건륭황제 때 어

제용으로 제작된 송화강석 벼루다. 큰 방 안에는 다양한 시대의 벼루와 필통, 필세 등의 문방 용구들이 곳곳에 놓여있다. <송대 단계 반변산석 열수연>(10~13C)을 살펴보면 단계석 특유의 치밀하고 매끄러운 결이 돋보인다. <청대 흡주 금성, 금훈 판연>(19C)은 자연스럽게 생성된 표면의 무늬가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처럼 아름답다.

### 수려한 아름다움을 갖춘 옥기와 금은기

전시장 중앙에 자리한 벽에 <요대 금제 마노 우두형 잔 한쌍>(10~12C)이 전시되어 있다. 이 시대의 옥기는 동식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 많은데, 이 작품 역시 보석의 하나인 마노를 재료로 소의 두상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여 정교하게 표현했다. 요대의 공예품은 조각이 간결하고 세부적 각화에 치중하기보다는 전체적 간결함과 완전함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시장 왼편에서는 옥패, 옥벽 등 다양한 옥기를 볼 수 있다. 중국의 옥 공예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공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중국인은 옥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특히 애호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여지는 가장 오래된 유물 중 하나인 <신석기시대 홍산문화 옥인수패>(5000~4000BCE)는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옥패다. <전국시대 투각 곡문 용형 옥패>(475~221BCE)을 살펴보면 용의 형상 위에 곡식의 형태가 기하학적 문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동한 사녀형 옥패>(1~3C)는 한나라의 복식을 한 여인의 모습을 단아한 조형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여 인상 깊다.



동한시대 사녀형 옥패  
1~3C, H0.9 W6.5

전시장 오른편에는 다양한 시대의 금은기가 주로 놓였다. <서한 금동 상감 호형 문진>(206BCE~25CE)은 동 위에 금을 상감하여 입힌 것으로, 그 표현이 정교하고 아름답다. 장식적인 문양을 다채롭게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했다. <서진 금제 상감 보석요령>(3~4C)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하나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서진 시대에는 가는 줄 세공, 용접, 상감 등 정교한 금은 세공 기술이 주로 발전되었다. <당대 은류금 원앙보상화 합>(7~10C)과 <요대 금제 마노 기린당초문 합>(10~12C)에서 보여지듯 당대를 거치며 세공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그 문양도 화려해졌다.



서진 금제상감 보석요령  
3~4C, H4 W5.5

### 3. 주요작품소개

## 대표작품



하가점문화(夏家店文化)는 기원전 약 4000년전에 출현했으며, 내몽골 동부와 요녕(遼寧) 서부, 하북(河北) 북부 연산(燕山)남북지구 등에 분포했다. 하가점(夏家店) 채회도격(彩繪陶鬲)은 검은 간토기 위에 홍색, 백색, 황색 등의 안료로 각종 도안을 그리고, 기하문(幾何紋), 구운문(鉤雲紋) 및 상주(商周)시대 청동기에 새겨진 수면문(獸面紋), 뇌문(雷紋)과 유사한 도식이 있으며, 그 외 운문(雲紋)이 있다. 하가점문화에서 보여지는 도자기들은 상주시대 청동기 도안의 겉모습과 본질적인 면에서 닮은 점이 많았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하가점문화의 특징, 분포지역 및 문화의 발전방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상대(商代) 문화의 기원에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 신석기시대 하가점문화 채회 삼족 도격

Painted Three Legged Pottery

from Xiajiadian Culture, Neolithic Period

2000~1600BCE

H26 W17



요금(遼金) 시대의 옥기는 청옥, 백옥, 마노가 주재료로 사용되었고 특히 화전옥의 사용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조형은 기하학 문양과 동식물 문양이 주를 이룬다. 전형적 문양으로 사슴, 해동청(海東靑), 호랑이, 모란, 연꽃과 새 문양이 있다. 공예상에선 조각이 간결하고, 도법이 거침없어, 조형과 형상의 세부적 각화(刻畫)에 치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통일감과 간결함, 완전함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요대 금제 마노 우두형 잔 한쌍

A Pair of Gold Agate-Inlaid 'Ox Head' Vessels,

Liao Dynasty

10~12C

H5.1 W11



명대와 청대의 문인들은 각종 문방 용구를 특별히 중요시하였다. 문방사보 및 필통과 필세는 필수품이었다. 벼루를 예로 들면, 옛 사람들은 벼루를 가는 것은 발을 경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소동파는 '내 생애 전답 한 마지기 없어도 평생을 깨진 벼루를 갈며 먹고 살았다.'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옛 사람들은 늘 벼루를 벗삼았고, 좋은 벼루를 서안에 놓아 두고자 했다.

**청 건륭시대 송화강석 어옹도연(건륭년제)명**

Inkstone Carved with Imperial Songhua 'Fisher',

Qianlong Period

18C

함 H9.2 W6.8 D1.5

벼루 H8.7 W6.1 D0.8

이 벼루는 청대 건륭황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송화강석 명연이다. 푸른색 속돌을 연당으로 만들고 검붉은 겉돌로 벼루 덮개와 밑받침을 만들었다. 벼루 덮개에 갈대 숲 속에서 사색에 잠겨 있는 어옹의 모습을 정교하게 조각했다. 작은 속에서 큰 것을 보여주는 명연이다.



**청 옹정시대 투채 화훼당초 차화문 촛대 한쌍**

A Pair of 'Doucai' Candleholder,

Yongzheng Mark and Period

17C

H15 W12.3

「대청옹정년제」 청화해서관

청대(清代)의 경덕진요(景德鎮窯)는 명대의 전통을 이어 오면서 관요(官窯)와 민요(民窯)로 분류 생산되었다. 청대 도자기를 대표하는 가장 수준 높은 도자기는 바로 관요 자기였다. 특히 청대 초기의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乾隆)시대의 경덕진 관요에는 관원들이 특출난 장인들을 모아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더욱 진력했다. 원명시대에 이미 청화, 유리홍, 분채, 오채, 소삼채, 홍유, 황유, 남유, 청유 등의 명품 자기가 있었지만, 청대에 이르러 이들은 새롭게 재탄생하고 발전을 이루었다. 더 나아가 중국 고대 자기 중 절품(絶品)인 분채(粉彩), 법랑채(琺瑯彩) 등의 우수한 채색 자기가 만들어졌다. 당시 관요 자기의 기형은 풍부하고 다양했을 뿐 아니라, 정교하고 다변했다. 청대 초기의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乾隆) 시대의 관요 자기는, 역대 명요(名窯)와 명품 공예 기술에서 큰 성과를 이루며 창작과 발전을 거듭했다. 중국 고도자(古陶瓷)의 발전사 역시 수천 년에 걸쳐서 독보적 성과를 거두었다.

박외중 '중국고문물역사개요' 일부 발췌